

# 광양시, 1700억 민자 유치해 리조트 짓는다

18만여㎡ 지구단위계획 의결... 숙박시설·병원 등 조성 나서  
백운유원지내 숙박시설은 민자 84억 유치... 체류형 관광 기대

광양시가 1700억원대 규모의 리조트 조성에 나선다.

광양시는 11일 “느랭이골자연휴양림 인근에 민간자본 1700억원 규모의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4일 광양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연접지역 18만8000㎡에 대해 ‘광양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는 다압면 신원리 산 135-2번지 일원에 관광숙박

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의 건립을 허용하고,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느랭이골자연휴양림 주변 관광자원인 섬진강과 어지계곡, 매화마을, 수어저수지 등과 연계된 43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170명상 규모의 병원 등을 갖춘 리조트가 조성된다.

광양시는 이번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을 보완해 올 하반기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쳐 단계별로 리조트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운유원지 숙박시설 조감도

권희상 광양시 도시계획팀장은 “부족했던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을 확보해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최근 백운유원지내 숙박

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84억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지난 6월 광양시 광영동에 거주하는 손성경 씨가 주민입안으로 백운유원지 기반 시설 투자를 제안한 것을 7월 광양시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투자되는 민간자본은 2020년까지 총면적 1만 5833㎡ 연면적 6000㎡ 규모의 숙박시설 3개동(객실 84실)과 클럽핑테라스, 바람전망대, 진입광장, 녹화마당 등을 조성하게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  
/광양=김경원기자 kkw@



영국 애버딘대학교 건물 전경

## 영국 애버딘大 한국캠퍼스 설립 승인

광양경제자유구역내...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 양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에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가 들어선다.

1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에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설립을 승인했다.’

이번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유치는 현재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적된 설계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의 전적인 해외의존과 20%를 밑도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해결을 위한 것이다.

애버딘은 북해 유전지의 중심도시로 영국 내 해양플랜트 관련 기업 본사의 80%가 들어서 있으며, 애버딘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영국 내 해양플랜트분야 1위 대학이다.

애버딘대학교의 한국캠퍼스가 운영되면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이 기대된다.

또 북해 유전지의 해양플랜트 설비 운영 경험과 심해저 자원 개발 기업과 연구단체들의 연합체인 ‘Subsea UK’(영국 애버딘 소재)와의 협업을 통해 기자재 설계 제작 등 관련 기술지식과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한 세계적인 명문 애버딘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해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산업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2017년 3월 개교되며, 공학석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석유공학, 상부설비공학, 해양공학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MBA과정은 1년 과정이며, 에너지경영 프로그램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 매회 매진 ‘선사인 야경투어’ 주 2회로 확대

광양 구룡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양만 야경

광양시가 시범 운영중인 ‘선사인 야경투어’가 매회 매진행렬을 기록함에 따라 확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범적으로 매주 토요일에만 총 4회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번달 예약이 조기 완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1일까지 주 2회(토·일요일)로 확대, 총 14회 운영하기로 했다.

선사인 야경투어는 광양읍사무소에서 오후 6시 30분 출발해 관광안내소를 거쳐 느랭이골자연리조트, 구룡산전망대, 이순신 대교 등을 관광하며, 매회 3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운영한다.

광양시는 오는 9월까지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 참가자는 “화려한 광양만의 야경과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의 아름다운 불빛축제와 구룡산전망대에서의 섹스폰 연주를 감상하다보면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잊게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광양시 문화관광과장은 “확대 운영하는 9월도 예약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 시범운영과 탐승객 설문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사인 야경투어’는 매회 참여자 38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출발 1일전까지 광양시 문화관광과(061-797-3714)로 전화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저렴하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제철·영동이앤씨, 취약세대에 소방용품 지원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와 (주)영동이앤씨(대표이사 박영일)는 지난 9일 광양소방서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문승표)에 소화기 500대와 화재감지기 300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광양소방서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화재 취약세대에 보급될 예정이다.

김민철 광양제철소 안전설비담당 부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광양제철소는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기증한 소화기가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를 막는 데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